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 코로나19 의무 검사 시행

(의료기관정책과, '20.5.15.)

□ 배경

○ 코로나19 관련 지역사회 **주요 취약·집단 시설에 대한 감시 강화 필요**

○ **질병관리본부 사례정의***에 한해 **건강보험·예산 지원 중**(2.7~)이나 **무증상자에 대해서도 검사실시가 필요하다는 의견** 지속 제기

* 확진환자, 의사환자, 조사대상 유증상자 대상으로 건강보험 및 정부 예산 지원 중

□ 주요내용

○ **(개요)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모든 신규 환자***에 대해서는 **입원시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**(결과확인시까지 별도 격리실 사용)

* 일평균 1,694명 입원('19년 기준), 하루 약 2천여명 검사 예상

○ **(비용) 입원 시 검사 1회**에 대해 **50%의 비용***을 **건강보험에서 지원**(5.13~)

* (기존) 8만원 전액 본인 부담 → (개선) 약 4만원 본인부담 (50%)

- 기존 **코로나19 핵산증폭**(PCR) **검사 수가*** 준용

상급종합병원	종합병원	병원	의원
82,200원	79,040원	75,880원	81,880원

* 검체검사 질가산(4%), 전문의 판독가산(10%), 종별가산 적용

○ **(기간) '20.5.16 부터 별도 안내시까지**

□ 협조요청사항

○ **(요양병원) 조기에 감염 유입을 차단**할 수 있도록 **적극적인 검사 시행**

○ **(지자체) 필요한 행정사항 적극 지원** 및 **검사결과 특이사항 등 관리 철저**